“모든 날 좋았다”…잼버리 대원 울린 천태종

일본 스카우트연맹 단원들 구인사에 한국어 편지 보내

14명 함께 쓴 편지 구인사에 친절 · 음식 · 숙소 등 호평 담아 서툴지만 한글 또박또박 쓰며 “구인사에 인사하러 갈 생각”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다가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조기 퇴영한 뒤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에서 3박4일을 보낸 일본스카우트 단원들. 당시 갑작스런 숙소 제공 요청에도 16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을 흔쾌히 끌어안은 구인사에 일본스카우트 단원들의 감사인사가 폐막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 감동을 자아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은 “구인사에 머물렀던 일본스카우트 단원들이 한글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10월 7일 밝혔다. ‘구인사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대형편지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그려넣어 잼버리 기간 양국의 교류가 얼마나 뜻 깊었는지를 표현했다.

“세계 점보리(잼버리) 때는 가파른(급박한) 예정(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한 대(환대)해 주셔서 감시(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사 여러분이 건강하게, 그리고 한층 더 수행에 몸을 둘 것(매진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로시(Hiroshi)

이 편지에 감사의 글을 쓴 단원들은 총 14명. 인터넷 번역기를 활용한 것처럼 문장은 매끄럽지 않고 오타도 있지만 천태종과 구인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자필로 온전하게 담았다. 단원들은 구인사에서 느낀 사부대중의 친절함, 정갈한 음식, 잘 정리된 숙소, 영산재 시연 등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편지에 구체적으로 밝혔다. 여기에 구인사 전경을 비롯해 3박4일간의 체험사진도 넣었다. 특히 쿠도 스미코(澄子 工藤) 단원은 “다시 한국에 가면 (구인사에) 인사드리러 갈 생각”이라고 전해 감동을 더했다.



일본스카우트 단원들이 손글씨로 써 보내 감사편지. 양국 국기와 직접 쓴 한글이 인상적이다.

천태종과 구인사에 대한 일본스카우트의 감사인사는 잼버리가 끝난 8월부터 계속돼왔다. 가장 먼저 코우야 니시무라 군은 8월 말 구인사에 영문으로 쓴 편지를 보내 “구인사 사부대중은 우리에게 숙소와 식사, 간식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줬다. 여러분의 모습은 부처님과 같이 친절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불교 신자임에도 다른 나라 잼버리 대원들처럼 서울 구경을 하지 못하고 산에 갇혔다고 불평했다. 바보 같은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반성의 뜻도 전했다.

며칠 뒤에는 일본스카우트 단원의 어머니라고 밝힌 스노츠카 유이코 씨의 한글 손편지가 구인사와 단양군에 전해졌다. 스노츠카 씨는 또박또박 한글로 쓴 손편지에서 “구인사 여러분은 물론 이웃분들도 많은 과일과 옥수수 등을 주셨다고 들었다. 언젠가 딸과 단양을 관광하고 싶다”며 단양군과 구인사의 행복을 기원했다.

이 같은 스카우트 단원과 모친의 편지에 이어 일본스카우트 잼버리연맹도 9월 초 구인사에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이 알려지며 천태종의 배려는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데타 유키노리 파견대장 겸 전무이사와 요리마사 마츠다이라 대표단 부국장은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에게 “다양한 지원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환대에 감사드린다. 한일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스카우트연맹은 9월 19일 구인사를 방문해 덕수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데타 유키노리 연맹 대표는 이날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일 청소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구인사에 방문한 단원들이 훗날 성인이 돼 자신의 아이들과 이곳을 다시 방문해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에 덕수 스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인사에 머무르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 다행이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긴 인연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천태종은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일본 단원 1600명을 구인사로 맞아 3박4일간 광명전 · 판도암 · 설선당 등을 숙소로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조 · 석식도 제공했다. 구인사 방문 기념법회와 더불어 단양군과 공동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 및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일본스카우트 단원들은 온달관광지 · 도담삼봉 · 다누리아쿠아리움 ·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단양 일대를 관광한 데 이어 구인사 경내에서 영산재 · 명상체험 · 108배 · 소원지 작성 등 불교문화 활동에도 참여했다.

“불교문화유산 인식 전환 노력을”

진우 스님, 10월 12일 유인촌 장관 예방서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찰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조계종을 예방한 유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사진> 먼저 취임 축하인사를 건넨 진우 스님은 “장관께서 누구보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넓으신 것으로 안다”며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경제와 더불어 문화적인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국가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보전비용을 100% 부담하는 궁 · 능 대비 홀대받는 사찰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스님은 “우리 문화재 60% 이상이 불교문화재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종교를 떠나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과거 장관 재임 때도 공무원이 직접 사찰에 찾아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어려워 스님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늘 얘기했다”며 “말씀하신 부분들이 업무에 해당하니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에 덕림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임명 포교연구실장엔 문종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신임 부 · 실 · 국장 스님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에 불학연구소장을 지낸 덕림 스님이 임명됐다. 또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에는 법정 스님이 임명됐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10월 10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신임 교육부장에 덕림 스님을, 불학연구소장에 법정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범해 스님은 국장단 등 교역직에 대한 인사도 단행해 연수국장에 선호 스님,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일오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같은 날 포교국장을 맡고 있던 문종 스님을 신임 포교연구실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포교국장엔 선보 스님, 신도국장엔 자경 스님이 임명됐다. 김내영 기자

일광 스님 중앙종회의원 자격심사 유보

직할 · 봉선사 · 직능 단독후보 통과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해인사교구 일광 스님의 자격심사가 유보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는 10월 12일 실시한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 회의에서 단독 후보인 직할교구 본오 스님, 봉선사 법륜 스님, 직능대표 행정분야 탄공 스님과 복수로 등록한 해인사 후보 가운데 향록 스님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직할교구에 입후보한 남전 스님은 사퇴했다.

반면 해인사 선원수좌인 일광 스님의 자격심사는 유보됐다. 2019년 동안거와 2020년 하안거 · 동안거 대중결계록에 미등록사설사암에서 한주 등을 맡아 정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등기부상으로는 일광 스님이 미등록사설사암 운영권자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해인사 교구선관위는 “실질적 사찰운영권자로 판단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호법부 조사를 거쳐 오는 23일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하는 것을 전제로 일광 스님의 자격심사를 유보했다. 또한 다음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결의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서울 국립극장에서 펼쳐진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 교성곡.

회당 대종사, 음악으로 만나다

진각종, ‘회당–불법은 체요…’ 음악회 성료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의 삶과 깨달음을 노래한 창작 국악교성곡 ‘회당’이 20여 년만에 서울 국립극장에서 다시 무대에 올라 진언행자와 일반대중들에게 환희심을 불러 일으켰다. 진각종(통리원장 도진)은 10월 11일 국립국장 해오름에서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 특별 음악회 ‘교성곡 회당-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작사 장용철 · 작곡 김회경)’를 개최했다.

교성곡 회당은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대종사의 드라마틱한 삶을 음악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총 4악장 16곡 90여 분의 길이로 구성된 칸타타 형식의 국악 대곡이다. 작품에는 해방과 6.25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혼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한 회당 대종사의 치열하면서도 애절한 삶의 여정과 뜨거운 구도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신중일 기자

한국관광학회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23년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2023.9.25 - 11.17

공모부분
1. 템플스테이
2.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또는 사찰음식에 관한 자유주제)

응모자격
- 일반인,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연구자(내국민, 외국인 포함)
-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최대 4인)

응모일정
- 논문 접수 마감 : 11월 17일(금)
- 본선 수상자 발표 : 11월 24일(금)
- 논문 발표 및 시상 : 12월 1일(금)

※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방법
- 안내 및 논문 양식 다운로드 (한국관광학회 및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공지사항)
- 논문 제출 : 이메일(tosokjo@gmail.com) 접수

한국관광학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시상내역

구 분	주체 부문별 시상 수		시상금	시상금 합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최우수상	1팀	1팀	300만원	600만원
우수상	1팀	1팀	200만원	400만원
장려상	2팀	2팀	100만원	400만원
총 8 팀				1,400만원

※ 수상 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게재 확인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 : 02-2031-2025

문의사항
- 논문 관련 문의 : 조미나 대학(원)생 위원장 (수원대 교수) tosokjo@gmail.com
- 행정 관련 문의 : (사)한국관광학회 사무국 tosok.hfm@gmail.com